

### 지상 법석

# 계행 청정해야 저 언덕에 도달

셋째 불사유, 넷째 불망어, 다섯째 불양심, 여섯째 불악구, 일곱째 불기어, 여덟째 불탐욕, 아홉째 불진에, 열째 불우치입니다.

이 십선계를 몸으로써 행하고 입으로써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신구의 삼업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계행입니다. 또 이 십선계는 대승계의 기본인 동시에 재가계의 청규로서, 불교의 기본적인 생활원리입니다.

미륵하생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3업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으로 나쁜 행 짓지 아니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란 것은 비좁아지지 않은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혹여 마음에 무슨 길고 얇은 마음이 있느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은 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게도 할 수 있고 또한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로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진실과 어리석음의 3가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을 길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납고 폭악한 마음에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결여된 종교인은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지식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잔재주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은 인간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과 불행과 고통에 대한 해결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아니고

어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도 하며 불보살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스승과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로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알아내어 괴로움이 되는 원인은 어떤 회생을 무릅쓰고라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얻어주려고 합니다. 불보살께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지혜의 방편을 쓰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일생 모두가 그렇고 팔만사천의 법문까지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편밖에 있는 궁극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편에만 매달려 허송세월을 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음과 수행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보살과 부처님은 무수한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을 이룰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따릅니다. 권력과 금력과 기계와 과학의 힘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 밖에 없습니다.**

## 좋은약 있어도 복용 안하면 병 못고쳐 오게 범하면 자비·지혜 종자 죽이는 것

하고 몸으로써 또한 범하는 일이 없어 한다. 미망이 몸·입·마음의 나쁜 업 여의는 자는 생사고해를 뛰어넘어 저 언덕에 이르리라. 삼업을 닦아 십선업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매우 함축성있는 말씀입니다. 또 3가지 선업 중에서도 구업을 더욱 중히 여겨 네 항목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여금 알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존속한다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제에 대하여는 대승 세가지

마음이 얇은 사람은 참다운 진리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진리를 잘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얇은 사람은 신앙도 종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스승 반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물줄기라도 힘없이 흐르면 끝내 바위를 뚫는다. 무의미하게 한 평생을 보낸다면 후회하지 않았는가. 의사는 병을 바로 알아서 좋은 약을 쓰지만 그 약을 복용하고 안하고는 완전히 병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을지라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는 아가 말씀드린 3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명과 번뇌의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속제(俗제)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절대진리인 진제(眞제)까지 조명하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이룸하여 반야라 하기도 합니다.

저 하에 떠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가장 큰 광명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는 못생명을 살게하고 자라게 하는 열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혜 즉 반야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반야는 일체무명과 미망을 밝게 비추어 밝히고 모든 중생을 살게하고, 자라게하는, 즉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의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또는 반야를 일컬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마음을 내어놓고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또 믿고 이해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혜형 중의 과정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 불교인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도 신행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행도 신행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이타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 모든 장애가 풀려서 결국은 바다를 이루듯, 그 모든 선근과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깨달음과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⑤

#### 초전도의 수수께끼 김성규

마호메트의 관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신비감과 수수께끼를 남겨 놓은 적이 있었다. 초전도체로서 그것을 만들어 그 속에 보통 자석을 넣어둔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반자성으로 보통 자석을 튕겨낸다. 즉 N극에는 N, S 극에는 S가 서로 마주보게 된다. 이 때문에 그곳에 들어있는 자석은 귀신이 붙어있는 것처럼 혼자서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완강히 액체가 되기를 거부해온 헬륨가스가 어지럽게 파이프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가스가 반복 냉각되어 움직임을 멈출때 인구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온 극저온의 세계, -269℃가 되면 액체 헬륨이 깊숙한 용기 바닥에 고이게 된다. 온네스는 인과의 법칙을 초월한 또 하나의 세계, 극저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전도 현상을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오듯이 아무런 힘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넣어두어도 밖으로 솟을 기어오른다. 용기에 넣어두면 뱀이 기어나오듯이 솟을 용기 밖으로 액체 헬륨이 기어오른다. 헬륨속에 빈칸을 밀어넣으면 칸의 높이가 액체보다 훨씬 높음에도 솟을 기어올라와 헬륨 액체가 쉽게 고인다. 또 그곳에 넣고 돌리면 정점이 제로이므로 헬륨은 그대로 있고 그곳만 빙빙 돌아간다.

이와같이 극저온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본질은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 할 때 참선을 하여 내면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로지 하나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하는 물음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 놓고 밀도 없이 자신에게로 빠져드는 것이다. 다리를 들고 앉아 있다고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선은 본질적인 물음에 자신의 전부를



#### 극저온과 참선 삼매는 같은 경지

1895년에는 독일의 린데, 영국의 헬프슨이 공기를 액화하는데 성공하여 -180°를 얻었다. 이 온도는 지구상의 남극이나 북극의 혹한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추운 온도이다. 기체의 온도를 내려 액화하는데는 먼저 기체를 압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참선을 하여 입과 몸과 정신 등 모든 것을 봉하고 내면의 세계로 몰입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온도를 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려 할 때 온도를 낮추는 일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 속의 열운동이 활발하여 미세한 현상은 격자진동의 공간 속에 파묻혀 버린다. 그러나 온도를 내림에 따라 열운동이 그 활발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운동이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온네스가 1911년에 처음으로 용에서 발견한 잔류저항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저온에서 관찰되었다. 또 온도가 저온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이상도 못했던 현상이 나타난다. 금속의 전기저항이 완전히 제로가 된다. 액화된 헬륨은 그냥 보기에는 무색무취한 평범한 액체이다. 그러나 물과 비교하면 1,000배나 증발하기 쉽다. 이러한 액체 헬륨은 온도를 조금 더 내려 2K가 되면 지금까지 행렬히 응용하던 것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 상태의 헬륨을 헬륨II라고 하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초인

침투시키는 폭발적인 작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절실한 문제라야 24시간 풀어야 할 의심머리(화두)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내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은 극저온의 세계처럼 생사를 거를 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안에 갇혀서 적정에 잠기지도 않아야 하며,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얽매어 밖으로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다.

나와 남의 구별이 있는 분별심이 남아 있으면 참선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욕심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편만들 생각과고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화내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말로써 벗어나지 말고 행위로써 벗어나라.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끈다고 부처질을 한다면 불씨는 살아나 자신과 주위를 모두 태워버리듯이 마음속에 집착에 의한 욕심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선을 한다고 다리를 들고 앉아 있으면 조그마한 불씨처럼 자신의 내부에 탐심이 눈먼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고 갈 것이다.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 위하여 참선을 한다는 것은 극저온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액체 헬륨II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 제10회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研究·實踐·獎學·出家勉學 등 4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인재 발굴, 그들의 보다 앞찬 發展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本賞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b>■ 시상분야</b> <b>연구분야</b> 大學院 碩士課程을 이상의 學歷者이며 大學에서 時間講師 이상 助教授 이하의 職에 있는 者로서, 최근 2년 동안의 업적 중 佛敎學(佛敎學)을 중심으로 하는 歷史, 哲學, 文學, 藝術, 比較思想, 其他) 各 1개 科의 탁월한 研究成果를  올린 者. <b>실천분야</b> 佛敎에 入門하여 5년 이상 경과한 40세 미만의 불자로서 그 信行과 布敎가 他의 模範이 되는 者. <b>증가면학분야</b> 修行經歷 5년 이상 7년 이하인 스님으로서 布敎를 위한 學業에 힘쓰고 있는 스님.	<b>■ 시상규모</b> 각 분야별 1명, 300만원 <b>■ 후보자 제출서류</b> ·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별첨) ·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 학력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업적을 증명하는 연구물 또는 활동내역서, 성적 증명서 · 가족계 수계 증명서 · 추천서 3통(총장, 대학원장,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장)
<b>■ 접수마감</b> 94년 12월 10일까지 <b>■ 심사</b> 不二賞 심사위원회 <b>■ 수상자 발표</b> 불교계 언론매체 및 불교연구지에 발표 <b>■ 접수처 및 문의</b> 不二賞 심사위원회	<b>不二會</b>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575-6167-8 FAX: 575-6169

##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덜** 11일  
 ● 출발: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165만원)  
 ● 일정: 서울-델리(1박)-라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گیر, 나란다-파르나(1박)-바이살리, 루시나가르(1박)-볼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포르-서울  
 ● 특전: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 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켄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발: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108만원)  
 ● 일정: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론나푸와, 시기리아-하바라나(1박)-넬볼라, 아부비하르-켄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발: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140만원)  
 ● 일정: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계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발: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68만원)  
 ● 일정: 서울-타이베이(1박)-고공(1박)-화련(1박)-타이베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85만원)  
 ● 일정: 서울-덴파사(2박)-폭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헤초 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국외여행업 제604호

■ 여행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10명